

# 전웅태·정진화 근대5종 세계선수권 계주 우승

〈광주시청〉

〈한국도지주택공사〉

펜싱·수영서 좋은 성적 거두며 레이저 런 20초 이상 먼저 출발 2위 이집트 팀 여유롭게 제쳐

한국 근대5종의 간판 전웅태(광주시청)와 정진화(한국도지주택공사)가 세계선수권대회 계주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다. 전웅태-정진화는 24일(현지시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2022 국제근대5종연맹(UIPM)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계주 경기에서 펜싱, 승마, 수영, 레이저 런(육상+사격) 합계 1427점을 기록, 이집트의 아메드 하메드-에슬람 하마드(1419점)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전웅태는 지난해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남자부 동메달을 따 한국 근대5종에 첫 올림픽 메달을 안긴 주인공이며, 정진화는 2017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하고 도쿄올림픽에선 4위에 오른 또 다른 핵심 선수다. 이들은 세계선수권대회 계주에서는 다른 선수와 호흡을 맞춰 정진화가 2012년, 전웅태가 2016~2017년 정상에 오른 적이 있으나 함께 조를 이뤄서는 첫 우승을 합작했다. 2019년과 지난해 대회 계주에 한 차례 나섰으나 2위에 오른 바 있다. 펜싱 랭킹 라운드에서 37승을 올리며 선두로 나선 전웅태-정진화는 승마와 펜싱 보너스 라운드에서도 기세를 이어갔고, 선수 2명이 100m씩을 달리는 수영에서도 가장 좋은 기록(1분 51초 37)을 작성했다.

이전 경기 성적 합산에 따라 출발 시간을 달리하는 마지막 레이저 런에서는 2, 3위 팀보다 20초 이상 먼저 출발하며 이번 없이 우승을 확정 지었다. 전웅태는 UIPM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2022시즌은 우리 대표팀에 매우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항상 개인이 아닌 팀으로 함께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화는 "2017년 세계선수권대회(카이로 개최) 개인전 금메달을 따냈던 매우 특별한 국가인 이집트에서 동료 전웅태와 또 다른 우승을 거머쥐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계선수권대회 첫 종목부터 금메달을 수확한 한국 근대5종은 31일까지 이어지는 여자 계주와 남자 개인전, 혼성 계주에서 추가 메달 획득을 노린다. /연합뉴스



전웅태(왼쪽)와 정진화가 24일(현지시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2022 국제근대5종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계주 경기에서 우승 후 시상대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자배구 페퍼스, 일본 V리그 NEC구단과 자매결연

정기 훈련·연습 경기 약속 팀 한 단계 더 성장할 기회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은 25일 일본 V리그 NEC 레드키즈와 자매결연했다고 밝혔다. 페퍼저축은행 선수단은 이날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NEC아레나에서 NEC 구단과 자매결연 협약식을 한 뒤 향후 양국을 오가며 정기 훈련과 연습경기를 하기로 약속했다. NEC는 1978년 창단한 뒤 일본 V리그 7차례 우승을 차지한 전통의 팀이다. 지난 시즌엔 12개 팀 중 4위에 올랐다. 김형실 페퍼저축은행 감독은 "해외팀과 교류로 우리 선수들은 좋은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퍼저축은행은 오는 8월 13일 순천에서 열린 2022 KOVO컵과 10월 22일 개막하는 여자프로배구 시즌을 앞두고 지난 24일부터 일본 전지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이번 전지훈련에는 김형실 감독을 포함해 팀 창단 후 처음으로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영입한 베테랑 세터 이고은, 리베로 김해빈, 그리고 '2022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블네이션스리그'에서 뛰고 돌아온 주장 이한비 등 선수 14명이 참가했다. 이성희, 이경수 코치를 포함해 지난 시즌 KGC 인삼공사에서 이영택 감독을 보좌했던 박민범 코치와 '대학리그 최조 전력분석관'으로 알려진 박성수 전력분석관, AI페퍼스 선수에서 전향한 최민지 전력분석관, 전자랜드 수석 트레이너를 지낸 염은식 트레이너 등도 전지훈련에 동행했다. AI페퍼스는 1차 강원도 속초 전지훈련(5월 23-

30일)에서 왕복 4.8km에 이르는 설악산 산악훈련과 더불어 모래사장 뛰기 등 체력 강화에 집중했다. 경기도 용인 드림파크에서는 청소년국가대표팀, 목포여상, 흥국생명, 인삼공사 등과 연습경기를 치르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AI페퍼스는 이번 일본 전지훈련에서 경기 감각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현지에서 NEC 레드 로켓츠, 사이타마 아게오 메딕스, 히타치 리바레 등 일본 V리그 디비전 1팀들과 3차례 경기를 치른다. 김형실 감독은 "창단 2년 차에는 기성팀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팀이 되기 위해 선수단 모두가 합심하고 있다"면서 "기량이 뛰어난 일본 실업팀들과의 경기를 통해 팀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022 광주 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참가자들이 최근 빛고을체육관에서 태권도 품새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시태권도협회 제공>

## 광주 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성공리 마무리

해외선수단 등 1000여명 참여 조선대서 태권도아카데미도

광주시태권도협회는 지난 23~24일 빛고을체육관에서 '2022 광주 오픈 국제태권도대회'를 개최했다.

이영석 2022 광주 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장은 "광주는 다른 도시보다 지역 회원 간 단합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광주태권도협회와 조선대 등과 연계해 전문성이 강하다. 때문에 이를 믿고 세계 각국에서 참여를 했고, 올해도 참가 문외가 쇠도했다"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성장해 앞으로 KTA와 WT 승인대회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당구, 전국대회 '금빛 낭보'

김행직 3쿠션 우승...장문석·서서야 포켓9볼 혼성복식 우승



김행직



서서야(왼쪽)와 장문석

아마추어 당구 최강자 김행직(전남 당구연맹)이 3년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김행직은 지난 23일 전북 정읍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캐롬 3쿠션 일반부 남자 결승전에서 최성원(부산시체육회)을 50-35로 꺾고 정상에 등극했다. 김행직은 4강전에서 강자인(충남체육회)을 29 이닝만에 50-38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김행직은 '당구계 송홍민'으로 불리며 2010년 대 큰 주목을 받았다. 세계주니어선수권 4회 우승을 차지했던 그는 2015년 아시아선수권을 제패했

고 역대 최연소 국내 랭킹 1위에 오른 적이 있다. 또 이듬해 세계시니어선수권 준우승에 이어 2017년 포르투 월드컵 우승 등 성인 무대 데뷔 이후에도 줄곧 세계 톱랭커로 활약했다. 한편, 포켓9볼 복식경기에서도 장문석·서서야(전남)조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들은 포켓9볼 복식 4강에서 하민욱·최술익(부산) 조를 8-7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 결승에서 정영화·김윤미(서울) 조를 세트스코어 8-4로 꺾었다. 전남도체육회 최기동 회장 직무대행은 "전남 당구를 대표하는 우리 선수들의 금빛 낭보를 축하한다"며 "무더운 날씨 속에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값진 결과를 얻은 만큼 오는 10월에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외계+인 1부
2관	미니언즈2, 외계+인 1부
3관	탐간: 매버릭
4관	미니언즈2
5관	외계+인 1부, 범죄도시 2
6관	미니언즈2
9관	외계+인 1부
7관	헤어질 결심, 토르: 러브 앤 썬더,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8관	헤어질 결심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30회 정기연주회

**신나는 국악여행**

일시 : 2022.07.28.(목)-30.(토)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415-540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7.01.(금)-31.(일)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즐거움

**문화산책**